

간화선 중흥을 위한 전국 선원장 초청 대법회 시상중계 Ⅱ

주제 : 禪-스스로 만드는 행복

# 지금 깨어있음이 얼마나 행복한가



지상 백고좌

## 도현 스님

(쌍계사 금당선원 선덕)

약인정좌일수유(若人靜坐一須臾하면 승조항사칠보탑(勝造恒沙七寶塔)이나라. 보탑필경화위진(寶塔必景化爲塵)이나 일념정심정정각(一念淨心成正覺)이나라.

만약 어떤 사람이 고요히 앉아 잠시라도 일념에 들면 그 공덕이 항하사 모래수의 칠보탑을 쌓는 것보다 크다.

보탑은 반드시 쇠락하여 무너지고 흩어져 흔적이 사라지지만 한 생각 맑은 마음은 깨달음을 이루게 해주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가치를 추구합니다. 물질과 정신적 가치입니다. 이 계승은 정

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우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질 위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겠지만, 그렇다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고뇌하고 휘둘리게 됩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 미리미리 정신적 부(富)를 쌓아 두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간화선 위기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게 된 것은 내·외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10여년 전부터 남방불교의 수행법인 유포사나나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아뢰타 마음수련, 요가명상 등 불교 유사수행법이 전래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화선 풍토의 우리 선(禪)이 상대적으로 비교됨에 따라 일련의 문제들이 제기됐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간화선 전통이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된 문제를 우리 간화선 풍토 안에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또 재가불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선이란 무엇인가'를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가불자 선수행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간화선 풍토의 문제점 몇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물론 선의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선 그 자체는 옳할 것도 없고 쇠할 것도 없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간화선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에는 간화선 풍토의 내적·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첫번째 문제점은 조실 스님들의 역할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조실 스님은 조계종의 선종을 주도하고 있는 분입니다. 배로 비유하면 선장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조실 스님들께서 하시는 역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법문이다, 불사다, 행사참석이다 해서 밖으로 다니시기 때문에 안거 중에도 조실 스님 법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문이나 공부점검도 원하는 때 들고 물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간화선 풍토에서는 법에 관해 묻는 일은 오직 조실 스님께서 전담하시는 일이라 초학자



"우리 속에 있는 행복을 스스로 찾아 쓰라"고 법문하시는 도현 스님. 스님은 지금 이순간 하고 있는 일에서부터 정성을 다하라고 주문한다.

(初學者)가 공부 길을 물어가며 바로 가는 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작은 일 같지만 사실은 선원의 분위기나 선객들의 의식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갑히 청을 들인다면, 조실 스님께서 밖에서 나가서 하시는 법문은 법사 스님들에게 맡기고, 불사는 주지 스님들이 주관하게 해서 가끔적이면 선방에서 정진하는 수좌들에게 정성을 더 기울여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래야 간화선 풍토가 새로워진다고 믿습니다.

둘째는 계율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불교는 계정해(戒定慧) 삼학을 근본으로 합니다. 정혜를 아무리 잘 닦아도 행동과 사는 모습, 마음 쓰는 데서, 계행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셋째, 간화선 전통의 한문투 설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글세대가 계승위주의 큰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가불자들은 더욱 어렵습니다. 수백전의 그 시대에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

는 말로 의식을 유발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그 시대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넷째는 선수행자의 구도자세가 느슨한 점입니다. 지금 선방이 양적으로는 팽창해 있으나 질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법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는 구도열은 열여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행 자체를 즐기며 공부하는 방법이 모색돼 좌선 일반도 수행풍토를 개선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그간 선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역할을 중시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선학에 관심 있는 교수들을 초빙해서 지도급에 있는 스님들이 함께 간화선 지침서를 만드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수좌 스님들이 실참심구를 중시하다보니 선학자를 약간 폄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에도 이론물리학자가 있고 실험물리학자가 있듯이 선학자들이 발표한 이론이 적절하다고 생각될 때, 수행자가 그런 점을 자기 수행에 적용해 보는 것도 전혀 무의미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섯째는 여러 가지 수행법이 도래하는 문제입니다. 기존의 간화선 자체에 문제가 있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수행법에 솔깃해하니 간화선 수행방법 풍토에서 마음이 안 쓰일 수가 없습니다. 간화선 수행자는 이 같은 불교유사수행법을 외면만

### 간화선 풍토의 문제점

- 조실 스님, 수좌들 공부 점검 미흡
- 계율에 대한 관심 소홀
- 한문투 설법
- 수행자의 느슨한 구도자세
- 선 연구자 역할 확대
- 다양한 수행법 붐몰
- 정법 알리고 노력하지 않는 많은 불자들이

할 것이 아니라 직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유포사나를 직시하고 그 원리를 잘 알아 화두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불자들이 진지하게 정법을 알리고 노력하지 않는 것도 간화선 발전을 저해하는 한 문제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일도 팔지가 아픈데 새삼스럽게 어려운 불교를 할 게 뭐냐. 마음이 시킬 때 절에 가서 마음이나 좀 쉬다오면 되지' 하는 안이한 생각과 무관심이 문제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재가불자들이 정법을 알리고 하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면 된다고 봅니다.



5월2일 조계사 대웅전 안에서 도현 스님의 법문을 듣고있는 재가불자들.

## 현재 붙들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부의 시작

### 2003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현대불교신문 합본 9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3년 합본집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으며, 2003년부터 호당 32면으로 증면되어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큰스님 법문,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생활의 지혜,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 ■ 구입 안내

- 구성 : 상권 2003년 1월(402호) ~ 6월(427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2003년 7월(428호) ~ 12월(453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56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
- 입금계좌(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 우체국 010041-01-010042

#### ■ 주문 및 문의

- 전화 (02)737-0090 (MO) (02)737-8881 (FD) | 팩스 (02)737-0697
- e-mail : sclee@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관리부

■ 지난 호 구입가격은 60,000원(발송비무료)입니다. 지난해는 1998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합본이 신청가능합니다. 재고가 많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하세요



조계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5월2일-조계사 대웅전)

그럼, '선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은 연기의 세계입니다. 한 개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는 많은 관계가 얽힌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특별하게 구속하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기도 편안하지도 못합니다. 선은 이러한 현대인의 상황을 염두에서 풀어주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 법회 주제를 '선-스스로 만드는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수행을 통해서 이미 우리 속에 있는 행복을 스스로 찾아 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 순간을 알 수 없는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삶의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뿐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항상 자신을 살피는 선을 일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살며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행복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외부적인 조건이 갖춰져야만 합니다. 여기에 비하면 선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본래 갖춰진 행복을 찾아 쓰는 조건 없는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조금만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간단히 화두만 드는 것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화두를 드는 집중력과 지속력에 의해서 번뇌 망상의 구름이 사라지면 곧바로 맑은 기쁨이 드러나고 행복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은 화두를 들고 공부함으로써 집중력, 지속력, 기쁨, 행복감, 일념지경으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노력하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가불자들은 생활 일선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가족간에 서로 마음을 써야 할 일들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도님들이 쉽게 수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을 우선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틈틈이 공부를 하면서 서서히 화두공부가 몸에 배이도록 하세요.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듯이 마음에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깨달아야 한다든지 성불해야 한다는 말은 접어두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자기 지금 불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정성스럽게 사는 것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두만 타파하면 된다는 강박관념보다는 평소에도 화두 의식인 문제에도 마음을 쓰십시오. 마치 농사짓는 사람이 농사일을 하듯이 말입니다.

봄이 오면 농부는 삽이나 괭이를 들고 밭에 나가 먼저 단단해진 땅을 뒤집어 밑거름을 하고 씨를 뿌립니다. 것처럼 참선하는 사람은 먼저 계를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쉼이나 삼포도 묵은 밭을 일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선행도 평소에 착실히 쌓아야 합니다. 이것은 밭을 일군 곳에 밀

■ 도현(道玄) 스님

일반은 물론 불교계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도현 스님은 1963년 부산 범어사에서 입산 출가해, 72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에게 비구계를 받았다. 은사는 범어사 덕명 스님으로, 법랍은 40년. 현재 스님은 경기도 수도도 들어 오지 않는 지리산 연암포토에서 홀로 수행정진 하고 있다.

선은 우리 마음속에 본래 갖춰진 행복을 찾아쓰는 조건없는 방법



조계사 앞마당을 가득메운 재가불자들이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고 있다.

'깨달는다 성불한다' 생각조차 덜어내야

거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에 땅을 고르고 씨를 뿌리는 것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근본화두를 행하는 것입니다. 계를 지키고 선한 공덕을 쌓는 것은 밖으로부터 자신을 안으로 고쳐주는 것입니다.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것은 안으로부터 자신을 밖으로 고쳐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안팎이 만날 때 원만한 인격을 점진적으로 갖춰져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화두를 앞세워 놓고 일상생활을 해나가려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자기가 불되고 있는 일을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해야 할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일을 포박포박 잘 해나가다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으로 인해서 기쁨이 생겨나고 그곳에서 만들어진 행복감이 차분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저는 그 마음 바탕에 '이렇고, 이렇고' 알 수 없는 의심을 꼭꼭 챙겨나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자연스럽게 하다가

**'묻고 답하기' 현장**

- ▲진흙소가 쟁기질 한 이치를 알고 있습니다.
- 진흙소가 되어 쟁기질 해보세요. 그럼 알 것입니다.
- ▲행간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 그러면 수행해서 스스로 아세요.
- ▲행주좌와와 어묵동정 간에 화두 의심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잠만 자면 화두 의심은 온 데 간 데 없고 잠만 잡니다. 어떻게 화두 의심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 잠이 오면 자세요. 깨어있을 때 화두를 잘 쟁기세요.

면, 화두를 포박포박 쟁기는 마음이 일상생활 전반에 서서히 스며들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렇고' 하는 알 수 없는 의심이 바탕을 이룬 곳에서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를 '힘을 얻은 때'라고 합니다.

깨달아야 한다든지 성불하는 일 같은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화두를 들고 늘 깨어있는 그 자체를 행복하게 누리세요. 그래서 그러한 순간순간을 우리의 일상에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으로 수행을 삼으세요. 그러다보면 점차 마음이 편안해지고 밝아져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실상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집착을 조금씩 털어내며 모든 문제에

급급하지 않고 점차 이상에서 초연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재가불자 여러분, 우리는 가끔 마음을 크게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살고 못하는 일도 어찌 죽은 사람 생각하면 살아 있다는 이 자제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이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런 큰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주변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시원스럽게 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 '성불하는 좋은 법만단 인연'을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화두의심, 알 수 없는 '이놈'을 잘 쟁기십시오.

정리-김철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법문, 테이프르 들으세요"**

도현 스님의 법문을 비롯해 2월 15일-5월 9일 진행되는 선원장 초청법회의 법문을 테이프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문의-조계사(02-732-2115), 여시아문(02-737-8881)  
 법회 동영상 중계 www.jogyesa.org  
 www.buddhanews.com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19>



존경받는 노인이 되려면

최근 우리나라도 의료기술의 발달이나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연장된 탓에 노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산업 구조의 근대화에 따른 인구 이동과 이에 수반되는 대가족제도의 해체 및 핵가족화로 자식과 떨어져 생활하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건강이 악화되며, 외지할 곳이 마땅하지 않고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노인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 병고(病苦)로 대표되는 노인문제 이면에는 노인에 대한 전서가 깔려 있는 것이다.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연장자를 배려하는 예절이 줄어들고 있다. 나이트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는 버릇이 없다고 불평한다.

노인복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일본, 미국, 유럽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문제를 행정적인 복지제도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노인들을 의식주의 궁핍에서 벗어나도록 해

들 서로 말을 나누고 안부를 물으며, 공경히 예배하며 앉기를 청합니다."

법자가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보기에 이 대중 가운데는 나보다 연로한 이가 없건만, 공경히 예배하며 앉기를 청하지 않소. 그런데도 당신은 어찌 '우리 법에서는 연로한 이를 보편 공경히 예배하며 앉기를 청한다'고 말하오?" 존자 마하가전언이 말했다. "법지여, 혹 어떤 연로한 사람이 나이 80이나 90이 되어, 머리는 희고 이는 빠졌더라도, 만일 젊은이의 법을 가졌다면 그는 연로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아무리 나이가 젊어 25세쯤 되어서, 살결은 탄력있고 머리는 검어 한창 젊음과 아름다움이 넘치더라도, 연로한 이의 법을 가졌다면 그는 연로한 사람의 수에 포함됩니다." 법지가 어떻게 나이 80이나 90이 되어도 젊은이의 법을 가졌다 하며, 또한 나이 25세쯤 되어서도 연로한 사람의 수에 포함되는 지 물었다.

존자 마하가전언이 법지에게 말했다. "다섯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이른바 눈은 빛깔을 분별하여 애착하고 귀는 소리를, 코는 냄새를, 혀는 맛을, 몸은 촉감을 분별하여 애착합니다. 이 다섯 가지 대상에 대해 애착을 떠나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은 아무리 나이 80이나 90이 되어

'어떻게 살고 있나' 삶의 질이 존경받는 기준 나이 많아도 오욕 가득차 있으면 자격 미달

아 할 것이다. 노인을 위한 복지 제도의 정착 이전에 먼저 가정의 가치관을 재정립하여 가정이나 사회에서 노인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노인들의 태도도 변화되어야 한다. 노인들이 섬김 받는 입장에만 서지 말고 젊은 층을 이해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경전에서는 산술적인 나이로 마땅히 존경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잡아함경>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붓다가 사위국의 기수급고독원에 계시는 때에 일어난 이야기이다. 존자 마하가전언은 바라나(婆羅那)의 오니지(烏泥池) 연못가에 있었으며, 많은 비구들과 어떤 문제로 함께 모여 있었다. 그때 나이 많고 신체적 연로한 법지가 찾아와 한쪽에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한 동안 잠자코 서 있다가, 여러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때들은 어찌하여 연로한 사람을 보고도 인사도 하지 않고 안부도 묻지 않고, 앉으라고 공손하게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중 가운데는 존자 마하가전언도 있었다. 그때 존자 마하가전언이 그 법지에게 말했다. "우리 법에서는 연로한 사람이 올 경우, 다

리는 희고 이는 빠졌더라도, 그는 젊은이의 법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 비록 나이 25세쯤 되어 살결은 희고 머리는 검어 한창 젊고 아름다운 몸일지라도, 다섯 가지 대상에 대해 애착을 떠났으면, 이런 사람은 비록 나이가 젊어 25세쯤 되어서, 살결은 희고 머리는 검어 한창 젊고 아름다운 몸일지라도, 그는 연로한 이의 법을 성취하여 연로한 사람의 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연장자를 존경하는 것은 아름다운 풍속이다. 그러나 단지 오래 살았다는 시간의 길이로 연장자에게 공손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삶의 질이 존경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서도 행실이 탐욕에 가득 차 있다면 결코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 언행이 더러운 욕망에서 벗어나 있다면 마땅히 존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존경 받으려면 존경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이가 결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이 겸손하고 자상한 모습을 보이면 주위 사람들은 아름다운 노인으로 여기고 존경하기 마련이다.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피 흘리는 부처님의 영험 도량 가평 원흥사**

**신묘장구 대다라니 진언 7일 정진기도**

부처님의 영험이 가득한 원흥사에서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지구정성 7일 정진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고통 받는 마음이 간절할 기도로 치유되고, 소원하는 바가 성취되도록 무류 동참하시어 이루시기 바랍니다.

옛이야기로는 삼국시대 원흥가라는 곳이 이곳이었는데 이절의 스님이 불법은 물론 부처님의 자비로움으로 병을 치료하는 신비한 힘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이곳을 찾는 신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특히 이절을 찾아 많은 신병을 치료했다고 하고, 이때부터 이절이 있던 곳을 불심의 터전이라 하여 원흥 부락이라 불리워졌습니다.

옛절은 일제시대에 소실되었으며 소승 구원이 복원 불사 중 명승에 묻혀있던 두 부처님을 발견하고 정성껏 관육하여 새롭게 금으로 개금하여 원흥사에 모셨고, 이 부처님께서 기이한 피흘리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안내**  
 7일 정진기도 (신묘장구 대다라니 진언기도)  
 ●입재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회향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찾아오시는 길** ○ 서울에서 포천 일동 방향 신팔 사거리에서 현리(37번 국도) 방향 10분. 청평에서 포천 방향 20분.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 2리 494-1 전화 031)585-2090 원 흥 사 주지 구천 합장

**불교성지순례 (주)실크로드여행사**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전통있는 실크로드와 함께 최고의 순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특선 1 하룡베이 / 앙코르와트 6일 999,000원**  
 ●일정 : 인천-앙코르와트-하노이-하룡베이-인천 ●출발일 : 5월 28일

**특선 2 보현보살의 성지 아미산, 세계자연유산 구채구 112만원**

**몽골, 바이칼호수 8일(몽골 대초원과 러시아 바이칼호수) ▶출발일 : 6월 7일**  
 ▶일 정 : 인천-울란바타르- 이르쿠츠크-시베리아-바이칼호수-울란바타르-테를지-인천

**파키스탄, 실크로드 탐방 19일 ▶출발일 : 6월 21일**  
 불상의 탄생지 파키스탄의 간다라유적과 카라코람하이웨이 따라 피미르고원(총령)을 넘어 실크로드로-세계최장수 마을 훈자-쿠차 천불동 등 비경을 찾아 탐방하는 일정  
 ▶일 정 : 인천-라호르-택실라-페샤워르-스위트-힐라스-길기트-훈자-카슈카르-쿠차-우루무치-돈황-서안-인천

**중국불교 4대 명산 순례 \*10명이상 출발 가능**  
 ▶지장보살의 성지 구화산 5일 (남경-구화산 지장성지-천허제일 황산-황주-영은사(서호-상해)..... 85만원  
 ▶관음보살의 성지 보타산 5일 (상해-황주-영파-보타산-관음선사처 조음동-보제사-낙기산 등-상해)..... 79만원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6일 (조주선사의 백림선사 임제선사의 임제사, 오대산, 운강석굴 등)..... 95만원

**미얀마 성지순례 6일 (미얀마 최고의 불교 유적지 순례) 149만원**  
 ▶일 정 : 인천-양곤-바간(2000여개의 불탑-거대한 유적군)-만달레이-양곤(세다곤대탑, 까바에파고다-진신사리천전)-인천

**티벳 성지순례 11일 ▶출발일 : 6월 3일**  
 실크로드의 수명은 강임으로 특색있는 티벳의 불교성지를 찾아서...  
 티벳(루 11일(티벳 라사에서 미탈라(라)를 넘어 카루만(루)까지) ▶일 정 : 라사-포탈리공-장체-시가체-라체-치가(에베레스트 등 히말라야)조방-장무-카투만두

**수미산 순례 24일 ▶출발일 : 6월 4일, 7월 6일, 9월 3일**  
 수미산 순례의 선구자 실크로드가 수미산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수미산 순례는 어렵고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실크로드만의 노하우로 수미산 순례를 완벽하게 진행하겠습니다.